



전희경 연구원(왼쪽에서 두번째)과 연구실 식구들



Lab에서 온 편지

효율적인 시간 관리 · 팀워크 배워

글_ 전희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대사연구센터 박사과정 hkjean@kist.re.kr

나 설계만 느껴졌던 서울에서의 생활을 시작한지 도 벌써 8년이 되었다. 부모님의 그늘에서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었기에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은 설렘 그 자체였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더욱 새롭고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은 더욱 짧기만 했고, 나름대로 무척 바쁘게 보낸 듯하다.

늘 새해가 되면 연구실 박사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름이라고 더위와 씨름하다가도 무궁화가 피고, 또 약 100여 일 지나면 서리가 내리고 추워지면서 크리스마스가 곧 올 거야” 라는 말을 하곤 한다. 시간의 빠름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말로 요즘 들어 부쩍 공감하게 된다. 그러나 빠른 시간만큼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알고 있는 것보다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절실히 실감하게 된다.

지금 있는 KIST의 독성연구실은 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처음으로 생활하게 된 곳이다. 이 실험실에서의 처음 인상은 박사님과 연구원들이 하루 동안의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알차게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생활에 익숙지 않아 처음엔 무척 힘이 들었지만 이곳에서라면 빠른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요즘은 다들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많다고들 하지만 우리 연구실은 끈끈한 가족적인 분위기로 생활하고

있다. 얼마 전 새해에도 학생들이 박사님 댁으로 가서 새배도 하고 떡국을 먹으며 한 해를 시작하기도 했다. 이런 연구원들의 팀워크야말로 서로서로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발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된다.

초등학교 시절 각자 미래의 꿈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에 단연 최고로 인기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나 ‘과학자’였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초등학생에게 있어서는 대통령이나 과학자가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최고의 꿈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요즘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꿈은 걸로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당시, 나의 꿈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고, 지금은 환경보건 분야의 석사와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그 꿈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분야를 이끌어 온 많은 과학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어져온 역사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며 결실이다. 이러한 결실들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후배들은 올바른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더불어 과거 선배들 못지않게 후배들이 연구·정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초등학생들뿐 아니라 나아가 중·고생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의 첫번째가 과학자가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